114

◈2mm 흉강경을 이용한 다한증의 치료

안지섭, 윤경찬, 박창권, 유영선, 최세영, 이광숙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다한증은 불감손실이나 생리적인 필요량이상의 과다한 땀을 흘리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과 다른 병에 동반된 이차성으로 분류되며, 일차 성 다한증의경우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으로 나타나며 과거에는 국소 및 전신 약물치료 나 이온영동요법 등의 치료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적었고 이런 치료에 잘 반응하지않는 경 우에 액와한선절제술이나 상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해 왔다. 이 후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VATS]의 도입으로 현재는 다한증의 수술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흉강경의 장점 인 미용과 기능성을 살리기 위해 2mm 흉강경을 이용한 다한증의 수술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방법 : 환자는 97년 1월에서 98년 8월까지 2mm 흉강경을 이용하여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한 52례의 다 한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 병변 및 교감신경절단부위, 합병증,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고, 이들 중 13례에서 교감신경절단을 확인하기 위해 수지부 혈류변화의 관찰과 Thoracic Electrical Bioimpedence법을 이용한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를 사용하여 술전 및 술후 혈역학적 변화[맥박, 혈압, 체온, 혈류량의 변화, 심박출계수, 전신혈관저항계수, 심수축계수]를 비교하였다.

결과 : 연령 및 성별 분포는 10세에서 58세까지로 평균 28.8세였으며, 남녀비는 1.7:1로 남자가 많았다. 대부분의 환자는 손발의 과도한 발한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14례[27%]에서 액와 부의 발한과 11례[21%]에서 안면부의 발한을 호소하였다. 혈역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맥박은 절단술 직전과 직후 5분에 평균 96회에서 94회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평균 동맥 압은 74mmHg에서 65mmHg로, 체온은 섭씨 34.4도에서 35도로, 심박출계수는 2.6에서 3.5로, 전신혈관저항계수는 2358에서 1547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심수축계수는 1.15 에서1.23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혈류량은 절단직후부터 유의한 변화를 보이며 증가 하였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보상성다한증이 22례[42%,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4례], 경한 안검하수 2례, 기흉으로 흉관삽관술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2례, 늑막유착으로 인해 개흉한 경우가 1례, 재발하여 재수술한 경우가 1례 있었다.

결론 : 수술 전후의 혈역학적 변화는 평균동맥압, 체온, 심박출계수, 전신혈관저항계수 및 혈류량 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환자의 만족도는 43례[83%]에서 수술 결과에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2 mm 흉강경을 이용한 다한증의 수술은 미용과 기능적으로 우수한 효과의 결론을 얻었다.